

이윤행 함평군수 당선 무효형 확정

대법, 집유2년 확정...6·13지방선거 당선자 중 처음 광주·전남 단체장 5명 선거법 등 위반 재판 진행 중

이윤행 함평군수가 지난 6·13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당선 중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직위상실 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에서 재판을 받는 자치단체장과 선거법 외에 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 재판 중인 단체장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중 첫 당선무효 사례다. 이 군수에게 장간자금을 받고 중간지를 운영한 지역신문 주필 김 모씨도 2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 군수는 지방의원 시절인 2015년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은 "기부행위 시점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2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에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내년 4월 보궐선거 때까지 부

군수가 함평군 군수권한대행을 맡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현직 단체장은 이 군수를 포함해 5명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당내 경선 전 공당 직원 등을 동원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철도공사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위헌법을 심판 신청을 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또 강인규 나주시장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서비스(ARS) 파일을 1만4080명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단체장들도 있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승욱 강진군수도 경선 전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절 인사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선거법 외에 다른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이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도 있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수 로비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이 조사 중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2017년 11월 여성 주민들과 회식 자리에서 주민 한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 역시 과거 지역신문 대표로 일하며 발전기금 중 1억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하회섭 광주시 노동협력관 4개월만에 사직

임용 전 범죄...인사시스템 구멍

개방형 직위인 하회섭 광주시 노동협력관(4급)이 임명 4개월 만에 사직서를 냈다.

임용 전 저지른 범죄로 유죄 판결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시의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는 30일 "건강상의 이유로 최근 병가를 낸 하회섭관이 2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회섭관이 사표를 낸 것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4개월 만이다.

광주시는 하회섭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회섭관은 이달 초 광주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벌금 300만원(추징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

하회섭관은 2016년 자신이 근무했던 은행에서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지인으로 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 때 일어난 일이라서 징계 등 대상이 되지 않으며, 벌금형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도 아니다"며 "경위를 파악해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용 당시 하회섭관이 수사를 받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광주시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하회섭관은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광주경찰청 노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산업단지 분양 활기

분양율 20.7% 포인트 올라 53.4%

기업유치 늘어 일자리 창출

민선 7기 들어 전남도의 산업단지 분양률이 20% 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등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전남도내에 기업 유치가 잇따르면서 전남도는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전남지역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32.7%에서 53.4%로 20.7% 포인트 올랐다. 농공단지 분양률도 20.1%에서 49.9%로 29.8% 포인트 상승하는 등 전남도 산단 분양과 기업 유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날 전남도는 목포, 담양, 영암, 진도 등 4개 시군과 함께 디푸드(주) 등 16개 기업이 529억 원을 투자해 278개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서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분양률 50% 미만

이던 담양산단에 9개 기업(4만3346㎡) 투자가 집중, 산단 분양에 활기를 불어넣게 됐다. 투자 규모는 총 251억원이다. 125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분양률 또한 49.8%에서 59.4%로 9.6% 포인트가 오른다.

또 영암지역 3개 산단에 입주할 3개 기업(총 2만3980㎡)이 103명, 목포 대양산단에 투자하는 3개 기업(1만4711㎡)이 34명을 채용, '산업위기관리' 특별 지역인 목포와 영암의 고용시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산단 분양률이 61.6%에서 76%로 14.4%포인트 오르게 된다.

목포 대양산단 투자기업의 투자액은 약 87억원이다. (유)보은은 태양광발전기를, 대월ENG는 태양광 발전장치, 수배전반 등을, (주)나연산업은 차량용 차폭등, 선박용 배전반 등을 생산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중국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손잡다

그린카진흥원-공정연구원 협약

광주시가 중국 최대 자동차 기술연구 기관인 자동차기술연구센터 분원 유치에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0일 오전 중국 텐진시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를 방문, 광주그린카진흥원(원장배정찬)과 중국 자동차기술연구센터 자동차공정연구원(원장 까오지둥)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 협약은 친환경자동차

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이 자동차산업 관련 정책연구·기술개발·산업육성 등 전반을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과 중국이 친환경 자율주행차 산업을 세계적으로 선도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깊은 신뢰 속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자동차기술연구센터 분원이 광주에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 GIST, 지역 보고회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30일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반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지역 보고회를 GIST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열었다. 향후 5년간 총사업비 4061억원이 투입돼 광주 연구개발 특구(첨단3지구)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바 있다.

행사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현황을 산·학·연 관계자와 시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GIST 인공지능연구소 임혁 소장(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의 사업 현황 발표를 중심으로 사업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토론회로 진행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수영대회 대비 대테러 모의훈련 오는 7월 열리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30일 광주시 서구 영주체육관에서 육군 특전사 대테러부대 대원들이 선수단 차량 탈취범 모의 테러훈련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수영대회 때 전남 둘러 보세요

전남도, 수영대회 연계 외국인 여행객 상품 운영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광주를 찾는 외국인 여행객들을 위한 남도의 관광 상품이 마련된다.

전남도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연계, 대회 기간에 광주를 찾는 외국

인 관광객들을 위한 차별화된 지역 관광상품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버스를 타고 남도를 돌아보는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 프로그램인 '남도한바퀴'의 경우 대회 기간(7월 12일~8월 18일) 당일 코스와 1박 2일 상품 등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당일 코스는 국립광주박물관-나주박물관-농업박물관을 도는 박물관 코스, 담양 죽녹원-보성 다원-무안 회산백련지-신안 슬

로시티 등을 둘러보는 자연생태 코스를 구성해 관광객들 발길을 붙든다는 전략이다. 또 힐링&남도별미 코스의 경우 ▲장성 편백숲-메기찜, 닭 숯불구이-필암서원(월) ▲곡성 태안사 숲길-섬진강 매운탕·참계탕-순천만습지(화) ▲장흥 편백숲우드랜드-토요시장-보림사(수) ▲해남 대흥사-닭요리, 산채정식-해장막걸리-녹우당(목) ▲고흥 나로도 편백숲-나로도항(장어요리)-속성(금) 등을 도는 코스로 요일별로 다르게 운영할 계획이다. 1박 2일 여행상품으로는 국립아시아문

화전당부터 화순 운주사-순천 송광사-순천만 습지-해남 대흥사 등을 돌아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코스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담양 소쇄원-구례 삼산재-고흥 속섬-강진 백운동 별서정원 등으로 이어지는 민간-별서정원 코스 등을 마련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남도는 또 광주 인근 나주-화순, 함평-영광 등 4개 시·군과 연계, 권역별로 주요 관광지를 포함한 공동 관광상품을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